

청소년문화 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정 유 성*

아래 글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흐름인 청소년을 보는 시각의 변환, 반상의 전환,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청소년문화 담론의 형성을 위한 제안의 목적으로 쓴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청소년 현장에서 우리는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를 되살리는데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그에 걸맞은 학문 및 실천의 담론형성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그동안 청소년을 ‘문제범주’로만 보아 이들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해 온 청소년 연구나 교육이론의 극복과 함께 청소년들을 ‘주체’로 삼는, 곧 청소년들의 삶의 문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대중문화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담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서구의 문화연구 등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교육 및 청소년들의 삶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담론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아래 글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왜곡되고 상실된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 창조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청소년문화 담론 형성의 제안을 시론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해보고자 한다.

I. 들어가며 : IMF 체제와 사람의 위기 - 잃어버린 마음, ‘사람생각’

우리는 지금, 여기 굳이 IMF 체제가 아니더라도 진작부터 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경제, 정치, 사회의 위기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위기이다.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며 살아온 지난 삶에 동태가 난 것이다. 따라서 위기를 이겨내는 일도 그 뿌리인 사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비롯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이럴 때일수록 큰 숨쉬고 우리 안의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처럼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고 삶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잃어버린 마음’부터 되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일은 다름 아닌 그 ‘첫마음, 첫뜻’을 되새기는 일부터가 아닐까. 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더불어

*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살아야 하며, 또 그 참뜻은 무엇인지를 새겨보는 일이 그것이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고, 그 첫마음 첫뜻을 되새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어렵고 억눌리고 또 낯설게 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모시고 그 삶과 문화를 섬기는 일부터 비롯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들과 더불어 만나고 사귀고 또 서로 살리는 사람 사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다운 사이를 바로 세워야만 지금 여기 형클어지고 흐트러진 삶터 또한 비로소 되살아날 것이다(정유성, 1998b).

하지만 우리 사회처럼 중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로 밀린 사람들을 대놓고 구박하는 곳도 드물다. 계층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부터 지역, 인종, 문화, 삶의 방식 어느 자리에서고 조금이라도 중심에서 벗어나면 억누르고 따돌리는 일은 예사로울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마치 하늘의 절반인 여성만큼이나 위낙 오래되고 속내 깊숙이 스며들어 좀처럼 알아내기는 커녕 느끼지조차 못하는 가름과 나눔, 그리고 따돌림의 대상이 바로 나이에 따라 구박받는 자라나는 세대, 곧 청소년들이다. 가뜰이나 모자라기 짝이 없는 교육제도와 비뚤어진 교육의식에 치어 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IMF 체제의 최대 희생자다. 지금까지 앞날의 주인공이라는 미명아래 오늘의 삶을 유보당한 채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온 이들에게 이제 미래는 불확실한 전망이 아니라 확실한 절망으로 밝혀졌다. 어른세대는 거품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풍요나마 물려주었다고詹체하며 자신들의 강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삶의 방식과 문화를 덮쳐우고, 거기다가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무거운 짐까지 떠맡기고 있다. 그 바람에 자라나는 세대와 어른세대 사이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깊고 너른 틈이 생기고 다름이 일어나 어떤 만남도 사귄도 물 건너간 듯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동지에 숨어버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제 코가 석자라고 당장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삶과 문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미 시효가 만료된 지 오래인 자신들의 잣대를 덮어 씌우려 들고 굳은 기존의 틀에 가두어 길들이려고만 든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스스로의 삶을 살 기회도 채비도 없이 잘못된 교육에 치어 자신들의 잃어버린 삶과 문화를 왜곡과 일탈로 범벅된 사이비 삶과 상업논리에 절은 값싼 대중문화를 통해 보상받고 도피하여 위안 받고자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논의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다. 기껏해야 상업주의, 선정주의에 물든 매스컴의 알곡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청소년에 대한 무지몽매한 태도, 그러면서도 인간존재의 본질조차 시장논리에 따라 상품화, 물화하는 경향과 맞

몰려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조차 규제하고 틀에 짜 맞추려고 하는 권위주의와 위선으로 가득한 어른중심 문화의 억지와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천민성이 가장 심각한 문화산업을 기형적으로 확장시켜 청소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그렇다.¹⁾

이제라도 이런 틀을 벗고 진지하고 또 이들의 삶 자체에서 출발한 청소년 담론의 형성이 절실하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원론적이고 시론적인 제안을 위해 쓴 것이다.

II. 짚어보며 : 청소년문화 담론 만들기 - “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 주제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새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흔히 ‘청소년문제’라고들 하지만 이 말부터가 따지고 보면 모순 투성이다. 이를 떼면 ‘여성문제’라는 말로 마치 단지 그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무슨 문제 집단처럼 보듯이, ‘청소년문제’ 하면서 청소년들의 존재 자체를 무슨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청소년’하면 자라나는 세대의 삶의 이야기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지금, 여기 우리 함께 모여 사는 삶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며 또 삶의 주체이다.²⁾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러한 주제를 다룰만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청소년들은 문제 집단이며 그들에 대한 연구나 논의방식, 정책수립 과정 모두가 청소년들을 대상화하며 어른 중심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청소년들을 보고, 나아가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존재로 역동적으로 서로 대화할 바탕은 꿈조차 꾸지 못한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1)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제기(정유성, 1996, 1997a)와 특히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인식(1997b),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교육적 의미(정유성, 1998c)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이를 반영하여 지난 1990년 제정된 청소년 헌장이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만 보아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반성과 함께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 헌장이 발표되었다. 그 전문의 내용은 이렇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보다 더 이 사안을 분명히 드러낸 표현은 없을 것이다. 물론 문제는 이러한 선언적 헌장 뿐 아니라 연구, 논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 먼저 청소년 담론의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 그리고 그 담론의 중심에서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뜻에서 여기서는 그 동안 주로 서구의 비판적 문화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청소년 담론의 흐름을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청소년 담론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청소년들 스스로 만큼이나 젊다. 아니 청소년이라는 말 자체부터도 그렇다. 유럽에서도 ‘유아기^{childhood}’는 중세가 끝날 무렵인 17세기경에 생겨난 것처럼, ‘청소년기^{adolescence}’ 또한 근대 이후 사회와 가족 안에서 인간관계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말’이다.³⁾ 근대 들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삶이 일상화하고 이에 따른 핵가족 문화가 정착하자 그 이전까지는 그저 ‘어린이’에서 바로 ‘어른’으로 옮겨가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삶의 흐름이 그 중간단계인 ‘청소년’을 거치는 것으로 분화하였다. 그런 만큼 청소년 담론도 처음에는 이러한 중간단계의 특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테면 독자적인 삶의 시기가 아니라 그저 미래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시기로 본 것이 그렇다.⁴⁾

청소년 담론이 청소년기를 독자적인 삶의 시기로 보고, 청소년들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사회에 풍요와 더불어 안정이 찾아오면서 아이들의 수는 늘어나고 교육기회가 확대되며 노동세계로의 전이과정이 복합적이 되자 청소년들의 존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그들의 삶의 문제가 눈에 띄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삶 자체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이미 전후에 시작된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청소년들의 기존가치에 대한 거부 및 기존질서에서의 이탈 등이 이른바 ‘문제범주

3) 먼저 Philippe Ariès(1990)의 잘 알려진 책인 「어린이의 역사」는 중세의 ‘옛질서^{ancien régime}’가 흔들리면서 새롭게 대두하기 시작한 가족관계, 사회관계에서 어떻게 ‘어린이 시절’이 ‘생겨났는가’를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von Hentig이 쓴 이 책의 독일어판 서문에 보면 ‘어린 시절 만들어지기^{Erfindung der Kindheit}’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1990: 9). 그만큼 ‘어린이’, 또는 ‘어린이 시절’은 사회문화적인 변화과정의 산물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범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이다. 청소년 연구의 역사를 보면 대개 Stanley Hall의 「청소년기에 대하여^{On Adolescence}」라는 연구에서부터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또 이에 대한 논의가 비롯된 것으로 본다(Fornäs 1995: 5). 앞의 ‘어린 시절 만들어지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때 비로소 ‘청소년기의 발견^{discovery of adolescence}’이 이루어졌다고 할만큼 이 범주도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산물임을 강조한 것이다(Griffin, 1993: 11-15).

4) 지난 청소년 연구의 전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Stanley Hall의 생물학적 결정론에 바탕한 미래의 준비시기, 곧 개인과 사회발전은 나란히 가므로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 사회가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문명의 반열에 오르느냐 하는 선택과 비유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담론; ‘한 시대의 정신^{Zeitgeist}’은 그 시대에 주역으로 살아가는 세대의 가치와 문화의 공유로 상징할 수 있는 만큼 역사발전의 정신사로 청소년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Mannheim류의 역사주의 담론; 사회체제와 인성체제의 유비(類比)를 통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사회체제의 기존질서에 대한 인성체제 순응, 적응과정으로 보는 Parsons류의 기능주의 담론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기의 중간단계, 곧 과도기적 특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자체에 대해 그 다양성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 일범주의 틀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Cohen, 1997: 184-191).

problem category'로 먼저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Cohen 1997: 193). 아울러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한 대중매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범주를 호들갑을 떨며 표피적이고 또 선정적으로 다루어 일종의 '매체에 비추어진 소아병적 청소년관 *media kidology*'(같은 책: 181)을 널리 유포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순응과 복종을 거부하고 본격적인 저항과 일탈을 감행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회의 반응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세대간의 간극 *generation gap*'이라는 사소한 반응으로 넘겨버리다가 차츰 사태가 심각해지자 곤혹스럽고 난처함을 감출 수 없게 되고 드디어 '도덕적 공황 *moral panic*'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오랜 전쟁과 불안 끝에 오랜만에 찾아온 풍요와 안정시기에 자신들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저항과 일탈에 어른세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정을 깨고 '말썽 많은 시대 *troubling times*'가 다시 시작되고 기존질서와 가치체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들면서 어른세대는 청소년들에게서 시대의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것이다(Clarke et al. 1998: 71-72). 이렇게 해서 전후세대로서 첫번째 풍요의 수혜자이며 교육기회 확장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거리낌없는 소비세대이며 즉각적인 욕구충족의 세대인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빚을 뿐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한 사회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제 사회의 갈등은 계급대신 '나이'에 의한 사회집단간의 간극으로까지 확산되어, 나이에 따른 '새로운 계급'의 형성이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같은 글: 22).

청소년들은 중간단계의 어른의 삶에 대한 준비시기에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삶의 세계를 인정받자마자 거둬 대상화되고 소외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끊임없는 자기 삶과 문화의 추구를 통해 이들은 사회변화의 침병으로 그리고 '사회변화의 상징 *metaphor for social change*'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들어서면서 등장한 청소년들이 주도한 '반(反)문화, 저항문화 *counter culture*' 운동이 그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들의 저항과 일탈은 주로 하류층이나 주변화된 계층에서 벌어졌고 그 양상도 집단적이고 직설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 때 등장한 청소년들의 저항은 중류층에까지 확산되면서 그 행동양식도 덜 집단적이며 분산적이고 또 개인화된 측면이 강하며 기존 제도에 대한 대안적 제도의 모색과 대안문화의 건설로까지 나아가 삶의 방식, 가족문화, 그리고 노동과 직업영역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운동은 유럽을 비롯한 서구사회 전반의 전후질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기존의 권위 및 가치체계에 대한 거부로까지 진행된다. 아무튼 이 때부터는 청소년들의 저항과 일탈은 그것이 하류층,

또는 주변화 집단의 ‘비행~~delinquency~~’이건, 또는 중류층 집단의 ‘비동조~~disaffiliation~~’이건 기존 사회질서, 가치체계, 권위구조에 대한 거부와 이른바 문화적 ‘탈승화~~desublimation~~’(Marcuse 1968: 24)의 노력으로서 사회통합의 고착력과 사회제도의 장악력의 이완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과 일탈은 사회 전반의 변혁보다는 부분적 개혁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확장된 사회의 ‘허용성~~permissiveness~~’에 의해 거듭 기존 질서와 가치체계에 매몰되거나 그 안에서 새삼 허용적 일탈을 감행하는 정도의 ‘억압적 탈승화~~repressive desublimation~~’(Marcuse 같은 책)에 머물게 되었다(Clarke et al. 위의 글: 63).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상과 위치의 변화는 청소년 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들을 단순히 문제범주로 그러면서도 단일범주로 다루었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비판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의 기존 연구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이른바 ‘급진적 대안’ 담론들이다. 기존연구가 실증주의적이며 경험주의적 성향으로 청소년들을 대상화하고 동시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사회문제들의 원천이며 또한 희생자로 묘사하였던 반면에, 급진적 대안들은 구조주의적 마르크시즘, 탈구조주의 영향으로 사회문제와 청소년들 사이의 자동연상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며 청소년들의 존재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구조, 지배 및 권력관계라는 거시적인 배경에서 ‘헤게모니’의 형성과정이라는 축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한 실증적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이른바 ‘비판적 현장연구~~critical ethnography~~’를 통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그리고 살아있는 삶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를 확산하고 심화해 나갔다.⁵⁾

하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지나친 계급시각에서의 급진연구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주로 여성주의 및 탈구조주의, 탈현대 담론 등 다양한 사회적·학문적 분화·확대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담론 또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담론들의 배치~~discursive configuration~~’(Bhavnani, Griffin 1993: 8에서 재인용)속에서 청소년 담론은 여성연구에서처럼 단지 생물적 성, 사회적 성, 성성(性性)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종, 종족문제, 계급, 국가, 장애인, 연령주의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청소년들은 이데올로기나 사회

5) 그 가장 대표적인 담론이 영국의 버밍엄 대학 현대문화 연구센터(CCCS: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의 연구들이다. 위에 여러 번 인용한 Clarke 등(Clarke et al., 1998)의 이론에 바탕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윌리스(1989)의 현장연구법을 방법으로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되, 계급문화의 재생산 구조, 헤게모니의 형성 등 이데올로기 비판을 배경으로 ‘노동의 세대간의 분업~~generational division of labour~~’, 청소년의 노동 및 직업세계로의 전이과정, 청소년 하위문화 등을 광범하게 논의하였다(Cohen, 1997: 200).

적 조건으로서의 확실적인 범주가 아니며, 다만 부모들로부터 교사, 고용주, 청소년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세대의 삶에 다양한 정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집단에 비해 의미있는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집단으로서 어떻게 삶의 주체이면서도 ‘힘없음powerlessness’의 상징으로 규정되고 또 나아가서 ‘힘기르기empowerment’를 할 수 있나 하는 정치적인 결단까지를 포함한 담론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같은 책:8). 1970년대 비판적 청소년 연구의 장에서 급진적 담론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계급관계 속에서의 청소년문제였다면 오늘날 청소년 담론의 기초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안에 인종적으로 구성된 청소년문제”(Bhavnani, 같은 책:9에서 재인용)이다. 나아가서 이제 청소년문제는 “인구학적 문제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사회 형성에 핵심역할을 하는, 하지만 어느 때는 감추어지거나 추방된 어떤 전략적 모순들이 집약된 담론들과 제도들의 장”(Cohen, 같은 책 196에서 재인용)이라는 것이다.

90년대 청소년 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함께 무엇보다도 ‘다양성 difference’과 ‘복합적 이질성heterogeneity’(Collins, 1995:2)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마주하게 된다. 흔히 텍스트의 선별성, 자의성 그리고 탈국가적이고 탈역사적인 의식의 세계와 그리고 매체환경의 변화로 복잡해진 문화지형으로 상징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그러면서 기호와 이미지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시간적 구획과 이데올로기적 응집력을 가진 ‘시대정신Zeitgeist’은 사라지고 상대적이고 파편화된 진리들이 공존하는 시대일(같은 책:8)뿐만 아니라 주관, 주제, 정체의 의미 또한 달라진다.⁶⁾

이러한 새로운 지형속에 청소년 담론은 거듭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문제담론에서 문화담론으로의 이전이 그것이다. 이제까지 청소년 담론에서는 청소년들을 생물적,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논의와 연구들을 진행해 왔지만, 이제 20세기의 끝과 21세기의 첫 무렵이 겹치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적 존재로 거듭 등장한다. 이를 테면 이들은 어른이나 어린이의 그것과 구별되는 청각, 시각, 신체적 징표들을 담론적 상호작용에 의해 표현하고 또 이를 통해 표상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문화라고 하면 포괄적인 인간의 삶, ‘성향 또는 성향체계 *habitus*’(브르디외 1995:61) 상징적인 상호작용 등의 총체적인 산물을 말하기도 하지만(Fornäs 1995:4),

6)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의 비명행 전통의 대표선수 격이었던 Stuart Hall의 다음 이야기가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는 이제 총체적이며 중심을 갖고 안정적이며 또 완벽한 자아나, 자율적이며 이성적인 자아를 더는 상정할 수 없게 되었다. 자아란 파편화되고 불완전하며 다원적인 ‘자아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다양한 사회 관계망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그리고 역사와 관련되어 과정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이란 다양한 그리고 서로 다른 담론들 속에 위치 지워지거나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tuart Hall, Reimer, 1995:129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대중문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화 담론의 표상과 이미지를 말하기도 한다. 이 청소년문화 담론이라는 부분은 다음 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어쨌든 살펴본 대로 청소년 담론은 바로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이들 자신의 표현과 표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계들이 뒤얹힌 상호작용의 결과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청소년 담론은 그 주제만큼이나 ‘젊은’ 연구전통을 가지며 동시에 청소년 자체의 특성만큼이나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광범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같은 책:3). 그러면서도 거들 새로운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를 테면 현대성, 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시대정신, 또는 시대정신의 부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이 그렇다. 이는 한편 청소년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미래의 주역으로서 이들이 주인공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오늘날의 전망과 직접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성’의 논의가 한창인 중에 청소년 담론 역시 이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⁷⁾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전히 청소년 담론이 청소년 주체의 담론이라기 보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본 기존 질서와 기존 가치체계의 담론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이상화, 이상화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사회적 희생으로 보거나 하는 왜곡된 시각이 많다. 문제는 어떤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이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믿음이다.

청소년문화 담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담론이 되었다. 청소년문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문화개념은 ‘하위문화’와 ‘대중문화’이다. 먼저 ‘하위문화’로서의 청소년문화를 살펴보자. 청소년문화란 청소년이라는 주체의 문화적 영역이다.⁸⁾ 여기서 문화란 한 사회 안에 살아가는 다양한 집단이 각기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삶의 틀을 만들어가고 자신들의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 삶의 경험에 표현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문화란 또한 사물들에 대해 각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미를 갖도록 하는 ‘의미의 지도 *maps of meaning*’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사회집단의 사회관계의 방식이며 구조화되고 형성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형성의 틀이 경험되고 이해되고 또 해

7) 90년대 들어서면서 서구에서 일기 시작한 여러 가지 현대성 담론들이 그 본보기이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탈현대, 초현대, 또는 ‘재귀적 현대성 *reflexive Modernity*’(Beck, 1993)으로 보는 미래의 주제로 살아갈 청소년에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테면 탈역사, 탈주체의 시대의 삶은 어떤 모습이며 ‘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Beck, 1986)에서의 청소년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예감과 삶, 문화(Mansel, 1995) 등은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의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8) 아래의 논의는 우선 하위문화 개념형성에 고전적이며 또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Clarke 등(1998)의 이론에 주로 의존하였다.

석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사회 집단은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며 이에 따라 그들의 문화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각 집단의 문화는 서로 다르게 위치 지워지고 서로 대립하기도 하며 특히 사회적 지배와 복종관계, 또는 ‘문화적 권력관계’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를 테면 의미의 지도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인 문화 중에 어떤 특정 집단의 문화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문화지형을 압도·독점하는데 이를 ‘헤게모니’(Gramsci, 1987)를 가진 ‘지배문화dominant culture’라고 한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 사회 안에 지배문화라는 단일한 문화만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지배문화는 스스로를 유일한 문화, 보편적 문화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미의 지도 안에서 다른 모든 문화를 정의하고 제한하려 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지배문화의 헤게모니 행사에 따라 여타 문화들은 변형되거나, 타협하거나, 저항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폐기되기조차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지형 안에서 문화간의 다툼도 치열한데, 다른 문화들이 지배문화에 복종하고 그 지배문화에 의해 ‘복종문화subordinated culture’가 자신의 표현방식을 규제당할 때 지배문화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가지는 ‘헤게모니를 가진 문화hegemonic culture’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지배문화가 동질적인 문화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층적이며 지배문화 공간 안의 다양한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기도 한다. 또 복종문화 또한 언제나 지배문화와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서로 공존하기도 하고, 타협하며, 그에 따라 스스로를 변형해 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 사회 안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배관계와 문화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포괄적인 ‘문화지형cultural terrain’안에 지배문화와 상관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계층, 집단의 표현으로서의 문화들이 병존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계층들의 문화가 그렇다. 그런가 하면 병존하는 부문문화보다 하위영역의 문화, 곧 ‘하위문화subculture’들도 있는데 청소년문화가 그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이들은 규모가 작고 분명한 지역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너른 문화지형 안의 ‘하위체계들subsets’이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전체지형과 하위문화의 관계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청소년 문화는 ‘어른 문화adult culture’, ‘모(母)문화parent culture’와의 관계망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위문화들은 부분적으로는 모문화와 공통점을 갖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여기서 벗어나고 비껴난 문화이기 때문이다. 하위문화는 어떤 때는 느슨한 ‘분위기milieu’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관심사focal concern’를 가지고

특정한 틀과 활동들을 가짐으로써 분명한 차별성을 띄기도 한다. 특히 부문문화로서 모문화 및 보편문화와 구별되는 특정한 활동, 가치, 물질적 활용, 공간영역들을 가지게 될 때 그렇다. 이런 부문문화가 연령에 따라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청소년 하위문화(youth subcultur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하위문화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지형에서 형성된다. 어떤 청소년 하위문화는 모문화인 계급문화의 한 내용으로 상존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악명높은 노동계급 남성 청소년들의 일탈문화가 그렇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 하위문화는 특정한 역사적 계기에 발생했다가 어떤 순간에 가시화되고 확인되며 다른 집단이나 혹은 스스로에 의해 낙인 찍혀지기도 한다. 어떤 청소년 하위문화는 일정기간 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다가 구별성을 잃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래도록 남아 나름대로의 문화영역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렇게 문화지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청소년 하위문화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청소년들 사이의 다양성, 청소년문화의 계급성, 청소년문화의 모문화 또는 지배문화와의 관련성 등과 관련된 개념이며 또 주어진 역사적 배경, 현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논의는 문화지형 자체에 영향을 주는 시대정신, 또는 시대정신의 부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문화지형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대중문화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중문화와 청소년 하위문화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문화지형 변화의 중심에 자리할뿐 아니라 청소년 담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중문화를 청소년 담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청소년 하위문화, 특히 저항문화와 관련된 논의로 청소년 담론이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부분이며 또한 체험공간인 대중문화가 자연스럽게 핵심주체의 하나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겉보기에 일탈행위로 보이기도 하는 청소년들의 대중문화와의 관계를 나름대로의 그로부터 우러나는 ‘생생한 삶의 체험(lived experience)’을 통한 세계체험 및 현실인식으로 보며, 나아가서 ‘세속적인 창의력(profane creativity)’으로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고 부여하며 부분적인 정체성을 피하는 적극적인 문화행동으로 보고, 그 안에 숨겨진 ‘문화체험의 변증법(Dialektik des kulturellen Lebens)’(Willis, 1990: 9)을 읽어내고자 하는 등 노력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 지형이 대두하고 문화적 혼란과 “주관의 파편화, 의사소통의 인스턴트화”(Collins, 1995: 27)의 시대를 맞이하여 파편화라는 현상 자체의 총체적인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닌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재현으로서의 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수단, 곧 매체의 문제 또한 대중문화 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으며, 이는 청소년문화 논의에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⁹⁾

오늘날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뉴미디어의 등장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량의 상품화된 문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대중은 이를 소비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는 이제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삶과 의식, 그리고 기호와 버릇, 나아가서 깊은 속내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한다. 아니 어쩌면 이들의 삶과 존재 자체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의 존재이유이기까지 하다.

한때 그토록 인간성의 매몰을 우려하게 했던 대중에게 대량으로 생산, 분배, 소비되는 방식인 문화산업과 의식산업의 대두는 이제 대중문화의 창궐로 인해 재현방식, 텍스트들 그리고 이미지들에까지 침투하여 경험과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감각마저 만들어지고, 조직 혹은 조작되며 이윽고 정당화되는 새로운 문화지형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특히 그 주된 소비자며 당사자인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아의 형성,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성숙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Giroux, 1994: 3-6). 바로 이러한 자아의 형성, 정체성의 성숙과정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나아가서 그 문화지형과의 연관이야말로 핵심사안이 아닐 수 없다(Giroux & Simon, 1989).

III. 따져보며 : 청소년문화 담론의 형성을 위해 - “상실과 왜곡에서 수용과 창조로”

청소년문화, 대중문화의 문화연구들의 시사점을 적극 수용한 청소년문화 담론은 다음과 같은 심화와 확장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먼저 청소년 연구는

9) 이를 테면 대중문화의 유통, 특히 그 전달매체의 발전과 확산으로 전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뉴미디어’는 그 매체, 곧 수단의 새로움 뿐 아니라 생산양식과 비견할 만한 새로운 ‘정보양식’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감수성조차 바꾸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포스터, 1994: 22). 이에 걸맞게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체계 또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 대중문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떠나서 ‘미디어 문화media culture’라는 개념을 쓰자는 제안이 그렇다(Kellner, 1995). 미디어 문화란 우선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인공적 문화의 본질과 유형, 그리고 생산방식과 유통방식을 포괄한다. 그러면서도 대중문화, 대중예술과 같은 용어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그 경계가 무너진지 오래인 문화, 매체, 의사소통이라는 영역을 포괄하며 그 밖의 다른 제도와의 경계 또한 넘어서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34-35).

이제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세계 안에서 생활문화, 대중문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들과 사회적 실천들의 연관관계를 깨우치고 인식할 수 있는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중문화 속에 깃든,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한 인식론적 전제들, 권위의 유형들, 의미부여의 형태들이 생활세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영향을 주고, 침투해 들어오는지 비판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일이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문화 담론은 먼저 문화매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위한 노력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들이란 결코 객관적이거나 투명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에 의해 형성되며, 모순과 부정합과 단절이라는 물질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구조적 권력과 같은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정황은 차라리 그 이미지라는 거울을 통해 비판적 청소년 담론으로 파악 및 분석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무엇을 담아내느냐를 파악할 뿐 아니라, 무엇을 배제하고 담아내지 않느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Giroux & McLaren, 1992: XXIV). 이렇게 하여 대중이 매개를 당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현의 세계에 참여하여 일방적인 대중문화의 범람에 저항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서구의 문화연구 및 비판적 교육담론의 맥락에서 살펴본 청소년문화 담론에 힘입어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의 담론을 형성하고 또 실천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먼저 청소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우리 청소년 및 교육연구는 한마디로 신식민주의 분업체계에 의한 분절과 단절의 병을 앓고 있다. 학문의 뿌리로 삼는 서구 교육이론이 학제간의 연구라든가, 문화기술지 등을 통한 심층연구에 들어간지 오래전만 우리는 여전히 갖은 가지치기와 영역싸움에 나뉘어지고 갈라진 채 인간의 통전적인 이해는 처음부터 포기한지 오래다. 그러니 인간을 역사라는 맥락과 그때그때 주어지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다양한 문화환경 속에서 역동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화연구들과 문화연구들에 바탕한 비판적 교육담론, 청소년문화 담론은 바로 이러한 분절, 단절을 극복하고 인간 및 인간의 생활세계를 거듭 통합하고 역동적이며 중층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역사성, 맥락성, 통전성(統全性), 생명력의 복원을 통해 우리는 살아 숨쉬는 청소년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느낌을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처럼 유난히 제도의 폐해가 심각한 나머지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탈식민화의 담론 및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를 테면 인간의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 및

정체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창출 및 재현이라는 의미세계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의식과 개입을 시사한다.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에 의한 적극적인 의식 뿐 아니라 그 자체를 제도화되고 표준화된 의미세계에 끌어들여 청소년의 삶을 탈제도화, 탈식민화하고 그 안에서 생활세계를 되찾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저항, 대안문화의 노력들이 바로 그 좋은 본보기들이거나 이를 청소년문화 활동 현장에 수용할 뿐 아니라 그 창조적인 공간을 열어주는 일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시사점이다. 우리 청소년문화 활동은 학교라는 벽에 막혀 안팎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이제 학교 안팎에 청소년들의 삶을 되살리고 체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의 거의 문명 변화의 새물결이라고 불려야 옳을 새로운 시대적 요청들과 문화연구들의 성과인 다원적인 시대주제들의 수용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상실되고 왜곡되었던 청소년들의 생활문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인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에 청소년들의 삶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일부터 해야한다. 나아가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그밖의 청소년 활동공간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그토록 선호하는 대중문화를 과감히 도입하고 이를 삶의 체험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재료 및 계기로서 대중문화 만한 것은 없다. 물론 그렇다고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안목을 기르도록 해야한다. 이를테면 페미니즘 시각에서 음악이나 영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다시 읽는 등 당사자의 시각에서 대안적인 문화읽기를 꾀하는 노력이 여기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Schwoch, White & Reilly, 1992: 81-99).

IV. 나오며 : 청소년문화와 다양성의 조직화 - 어른스런 사회, 되살아나는 청소년

지금까지 따져본대로 청소년의 삶, 그리고 문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주제이며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 주제는 또 살펴보고, 짚어본대로 우리 사회를 거울로 비추는 시대적 주제이기도 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주제들과 특히 핵심과제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이를 꿰뚫어보는 눈도 있어야겠지만 그 너른 판과 깊은 속을

돌여다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청소년 주제만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데 절실한 주제는 없다.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시공이 압축된 변화를 해왔고 그만큼 다양한 시대의 문제들이 병존한다. 이를 풀어나가는 일도 바로 그런 압축을 통한, 그러면서도 그 게으른 ‘병존(並存)’을 깨고 조화로운 ‘공존(共存)’을 꾀하는 노력부터 시작할 일이다(정유성, 1998b: 78). 이를 떼면 문화지형만 해도 그렇다. 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점은 ‘동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것이다. 지금 한창인 일본문화 개방과 관련된 시끄러운 법석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문화를 너무 동질성의 측면에서만 보아왔다. 이제 문화를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욕망을 지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갈등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조혜정, 1996: 163). 나아가서 끊임없는 ‘동질성의 복제를 통한 문화통합’의 압박보다는 ‘다양성의 조직화’를 통한 문화개념의 이해, 곧 ‘하위문화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하위문화 사이에 어떤 형태의 공존과 협력을 가능케 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져야’하며, 개성과 다름이 위협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지형의 형성이 시급하다(같은 책: 164).

이런 점에서 거듭 청소년문화는 그 시금석이 된다. 이제 어른들의 문화를 ‘동질성’이라는 강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덮씌우고, 이들이 만들어낸 삶과 문화는 하찮은 것으로, 덜 익은 것으로, 위험한 것으로 무시하고 따돌릴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개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청소년문화 담론의 첫번째 과제는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의 요구이다. 이제 청소년문화 담론도 거대 담론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담화의 공존과 접합을 꾀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횡적인 여러 영역에 대한 확산 뿐 아니라, 종적인 여러 층위에 대한 개방과 심화의 노력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청소년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기를 뿐 아니라 여러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전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문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 어른들의 문화적인 폐쇄성과 편견을 벗는 자기교육 과정의 촉구이다. 살펴본 대로 청소년문화에 대한 무지와 무시는 비단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공간을 폐쇄하게 할 뿐 아니라 어른들 스스로의 문화 또한 부패하고 타락하게 한다. 또 기성세대의 문화와 자라나는 세대의 문화가 서로 어울리고 섞이지 못하고 전선을 형성하여 문화적인 정체마저 가져온다. “바람직한 변화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곳에서”(같은 책: 21) 나오게 마련이다. 다름아닌 청

소년문화에 대한, 이를 통한 어른들의 자기 교육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한 사회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른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는 일이 중요하다. 어른들이 어른다운, 어른스러운 사회에서만 청소년들의 삶은 되살아날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교육도 교육답고 사람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부르디외, P.(1995),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서울: 새물결
-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하나의 문화.
- 정유성(1994), 「사람·삶·되살림 1: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교육」, 서울: 한울.
- _____(1996), 역사속의 신세대. 1990년대: 궁핍한 정신, 풍요의 구가, 「역사비평」 1996년 가을호, pp. 155-165.
- _____(1997a), “너그러이 용서하려무나,” 또 하나의 문화 편(1997)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 서울: 또 하나의 문화, pp. 17-25.
- _____(1997b), “교육에 침을 뱉아라: 춤추는 대중문화, 눈먼 교육,” 한국 교육인류학회 1997년 추계학술대회 「대중문화와 교육」 발제원고.
- _____(1998a), 「사람·삶·되살림 2: 새로운 교육문화 사회운동론」, 서울: 한울.
- _____(1998b), “공동체로의 해방을 위한 사회교육,” 「평생교육연구」, 4(1), 1998.9. pp. 1-10.
- _____(1998c), “청소년 문화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철학연구회 1998년 학술대회 「문화개방과 문화교육」 발제원고.
- 청소년백서(1997),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 Ariès, Ph.(1990), *Geschichte der Kindheit*, München: DTV.
- Beck, U.(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_____(1993),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1998), “Subcultures, Cultures and Class”, in Hall, S./Jefferson, T.(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 New York/London: Routledge, pp. 9-74.
- Cohen, Ph.(1997), *Rethinking the Youth Question*, London et al.: Macmillan.
- Collins, J.(1995), *Architectures of Excess: Cultural Life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London: Routledge.
- Fornäs, J. Bolin, G.(eds.)(1995), *Youth Culture in Late Modernity*, London:

SAGE.

- Giroux, H. A.(1994), *Disturbing Pleasure: Learning Popular Culture*, New York, London: Routledge.
- Giroux, H. A. & Simon, R. I.(1989), *Popular Culture, Schooling & Everyday Life*, New York: Bergin & Garvey.
- Giroux, H. A. & McLaren, P.(1992), *Media Hegemony: Toward a Critical Pedagogy of Representation*, Introduction to: Schwoch, J. et al.(1992), *Media Knowledge: Readings in Popular Culture, Pedagogy, and Criticalchip*, Albany: SUNY Press.
- Gramsci, A.(1987), *Gedanken zur Kultur*, Leipzig: Röderberg.
- Griffin, Ch.(1993), *Representations of Youth*, Cambridge: Polity.
- Hall, S. & Jefferson, T.(eds.)(1998),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 3. Print, New York, London: Routledge.
- Kellner, D.(1995), *Media Culture: Cultural Studies, Identity, and Politics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New York, London: Routledge.
- Mansel, J.(1995), *Sozialisation in der Risikogesellschaft*, Neuwied: Luchterhand.
- Mead, M.(1971), *Der Konflikt der Generationen: Jugend ohne Vorbild*, Olten: Walter.
- Reimer, B.(1995), "Youth and Modern Lifestyle", Fornäs, J. & Bolin, G.(eds.)(1995) *Youth Culture in Late Modernity*, London: SAGE, pp. 120-144.
- Schwoch, J. & White, M. & Reilly, S.(1992), *Media Knowledge: Readings in Popular Culture, Pedagogy, and Criticalchip*, Albany: SUNY Press.
- Willis, P.(1990), "Erziehung zwischen Reproduktion und kulturellen Produktion", *Argument* 32. Jg. Heft 1 Jan./Feb. 1990, pp. 9-28.

ABSTRACT

The Study for the Discourse Building of the Korean Youth Culture

Cheong, Yoo-Seong

The youth in Korea recently have come on the stage as proclaimers of their own rights. The Charter for the Youth, for example, proclaims that the youth are the subject of their own lives, independent of the control by grown-ups including their teachers and parents. The proclamation of the Charter foretells that there should be (and will be) new policies for the human rights of the youth in Korea. Right policies, however, should be based on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issue. How much do we know about the contemporary Korean youth? Don't they seem to be quite different from what we used to be? Then, won't it be necessary to adapt ourselves to their way of thinking and their unique cul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m right? It can be said that the youth in Korea so far have been studied simply as objects belonging to "problem category," rather than as "subjects" who deserve to have opinions, lives and cultures of their own. We are afraid that the Charter for the Youth might end in an empty proclamation as were the cases with quite a few educational reform measures in the past. We should substantiate it by making and practicing policies that can surely promote and realize the rights and the wishes of the youth. The first step is to make every attempt to open-heartedly listen to and talk about the problems and the wishes of the youth. Thus, what is needed from now is to build the discourse of the Korean youth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preliminary step for building a discourse needed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Korean youth culture. First, it will be needed to have a critical overview of major cultural and educational studies done in the West and find out how helpful and relevant they are for developing a discourse of the youth culture in Korea and for understanding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the contemporary Korean setting. Then, we will have to carefully examine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life situation that the Korean

youth are facing and suffering. Then, this study will present as a preliminary sketch how the discourse of the contemporary Korean youth culture will be characterized and how it will be built.